'전남적극행정, 전국에서 통했다' 국무총리상수상



전남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공익직불금 업무협 의체를 구성해 농업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 증진과 농업인 소 득 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 남도는 전국 최대(4715억원·전국 1위) 규모의 공익직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간

공익직불금 업무협의체 구성해 농업인 불편 해소 고령 농업인 위해 그림일기로 쉬운 영농일지 배부

공익직불금 업무 이원화로 농민이 혼선을 겪었고, 영농일지 기록 등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공익직불금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홍보에 나섰다. 감액 우려 필지 사전점검을 안내하고 그림일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영농일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전국 최초로 구성한 공익직불금 업무협의체 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사전점검 을 통해 지난 2년 간 직불금 감액 79억원을 예 방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남도 가 제작해 배포한 그림 영농일지는 행정안전 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로 서정됐다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중앙, 지자체, 공 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예 선을 통과한 총 17건이 열띤 경합을 벌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진도군의 지역특산품인 '대파'를 활용해 버 거를 출시한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하며 전남도에 겹경사를 가져왔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와 진도군이 펼친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 사 례로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12월 개최 예정인 하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도민을 행복하게 하 는 행정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시, 172농가 4608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완료

광주시는 지역 내 전체 소 사육 172농가 4608두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수의사·공무원 등이 포함된 접종지원 4개반을 구성, 지난 1일 정부로부터 백신을 수 령받은 직후 50두 미만 사육농가인 149농가 2459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진행했다.

50두 이상 사육농가인 23농가 2149두에 대해서는 농장주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광주축협에 지원을

요청, 긴급 인력을 투입해 접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자치구·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동원

해 긴급 가축방역에 들어갔으며, 자치구 보건소는 흡혈곤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방역 강화 와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 고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국)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주관:

현대삼호重, '2023 대한민국 녹색경영·환경산업 기여 포상

기후변화 대응 및 ESG경영 성과 인정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 사장)이 대한민국 녹색경영과 환경산 업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녹색경 영대상' 시상식에서 녹색경영부문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건조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해 녹색경영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 에너지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경영 비전을 적극 실천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ESG 경영을 선도하는 조선산업 대표 녹색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신규 공모…경쟁력 확보 기대

전남도는 제4차 전남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답례품을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기부자 만족도,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군 특산물, 전남도 메가이벤트

입장권, 관광·체험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e음 전남 답례품 몰에는 전남 10대 브랜드 쌀,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300여 종의 다양한 답례품이 등록돼 전국 최고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현재 답례품을 제공하는 공급 업체와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 답례품의 다양성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4년 신규 답례품 공 급업체를 모집하기로 했다. 2024년 신규 답례 품 공급업체는 현재 제공하는 답례품을 제외한 물품을 생산·가공,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 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11월 중 전 남도 누리집에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광주시, '대유위니아 사태' 관련 고용위기 노동자 지키기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의결

광주시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와 관련, 고 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발빠르 게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오전 2023년 제2차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어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 청 안건을 신속 의결했다.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 장,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장,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각 분야 노사민정 위원 20명이 참석했

이번 회의는 대유위니아 사태로 인한 각 사업체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사업 집중지원을 위해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9 나주왕곡9호 태양광발전소

10 나주왕곡10호 태양광발전소

12 나주왕곡12호 태양광발전소

13 나주왕곡13호 태양광발전소

변용일기자

포스코홀딩스, 캐나다에서 유전염수 리튬 광구 개발한다

"IAC와의 전략적 협력 통해 리튬 공급망 강화 할 것"



포스코홀딩스는 캐나다 앨버타주 투자청 (IAC)과 협력해 유전염수(Oil-field brine)

(882 m²/20,320 m²)

(1,199m²/20,320m²

(979 m²/20,320 m²

(895 m²/20,320 m²

(825 m²/20,32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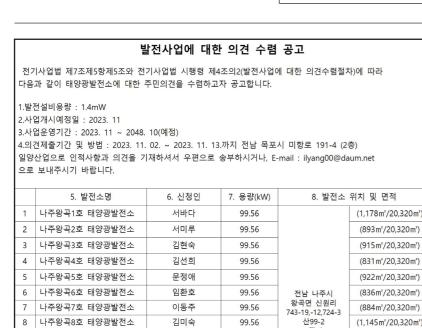
리튬 확보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IAC와 8일(현지시각) 주 한 캐나다대사관에서 포스코홀딩스 이경섭 이차전지소재사업팀장과 릭 크리스티안세 IAC CEO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앨버타주 내 유전염수 리튬 자원 개발에 협력할 파트너사를 찾고, 리튬 개발이 용이한 광구를 물색해 투자를 검토한 뒤 최적의 리튬 추출 공정을 실증하는 등 유전염수 리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IAC는 포스코홀딩스의 앨버타주 내 투자 행정 지원과 유망 사업자와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IAC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리튬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앨 버타주의 풍부한 자원과 포스코홀딩스의 혁 신 기술이 합쳐져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 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박용순

김준필

정춘길

조호진

송완수

99.56

99.56

99.56

99.56

99.56





